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과의 관계

조 영 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 현 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본 연구에서는 복종-지배와 적대-친밀을 두 축으로 한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와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24명의 고등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설문 자료를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 둘째,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지배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복종 쪽 대인관계문제와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대체로 많이 보고하였다. 넷째, 자율성이 낮을수록 복종 쪽 대인관계문제 및 친밀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았고, 유능감이 낮을수록 복종 및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았으며, 관계성이 낮을수록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 다섯째,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복종-지배 및 적대-친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성 만족을 매개하였고, 유능감과 관계성 만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상담에의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복종-지배, 적대-친밀, 주 양육자, 애착, 애착불안, 애착회피, 기본심리욕구 만족,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청소년

[†] 교신저자 : 조영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대우교수,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403호

Tel : 02-705-8711, E-mail : youngju.chona@gmail.com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타인과 친밀함을 형성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며(Erikson, 2014),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2016)에 따르면, 201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주 호소문제는 대인관계문제가 2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에도 대인관계문제는 전체 호소문제의 19.5%였고, 이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6). 몇몇 연구자들은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는 틀로 복종-지배와 적대-친밀을 주요 차원으로 하는 원형모형을 제안하였고(Kiesler, 1983; Leary, 1957; Wiggins, 1979), 이를 바탕으로 8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가 경험적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김영환 등, 2002; 정남운, 2001; 홍상황 등, 2002; Alden, Wiggins, & Pincus, 1990). 그러나,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전체 점수를 사용하거나 작은 수의 요인으로 묶어서 사용하였고, 8개의 하위척도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인관계 문제의 원형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열식으로 살펴보았다. 단지 몇몇 연구에서만 복종-지배 및 적대-친밀의 두 가지 차원이나 원형성을 고려하여 대인관계문제와 다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Schauenburg, Kuda, Sammet, & Strack, 2000).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의 두 가지 직교적 차원과 8개의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와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개인 내적 심리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인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홍진이, 한기백, 2015). 또한, 개인 내적 심리 특성인 기본심리욕구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Horney, 2006; Sullivan, 1953).

대인관계에서는 다양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적절한 반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제한된 범위의 반응을 갖은 빈도나 높은 강도로 사용하면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다(Leary, 1957). 많은 연구자들은 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Sullivan(1953)은 안전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안전의 욕구는 친밀감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미 있는 타인과 친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존감의 욕구는 지위, 권력 혹은 자기 가치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Sullivan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인관계문제를 복종-지배와 적대-친밀을 주요 차원으로 하는 원형 상에 배열한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을 제안하였다(Kiesler, 1983; Leary, 1957; Wiggins, 1979).

나아가서, Alden 등(1990)은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의 대인관계문제 척도를 바탕으로 적대-친밀과 복종-지배의 두 개의 직교 차원을 가진 원형 상에



그림 1.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위치한 8개의 대인관계 하위척도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적대-친밀 차원은 타인에 대한 관여의 성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리감이나 지나친 관심을 갖는 정도를 말하며, 복종-지배 차원은 타인에 대한 관여의 의도로 타인에게 통제받거나 통제하려는 정도를 말한다(정남운, 2001; Horowitz, 1979). 8개의 요인은 지배(domineering), 적의(vindictive), 냉담(cold), 회피 socially avoidant), 비주장(nonassertive), 피착취(exploitable), 헌신(overly nurturant) 및 간섭(intrusive)을 포함한다(박영주, 이영호, 2010; Alden et al., 1990). 우리나라에서는 김영환 등(2002)과 홍상황 등(2002)은 한국적인 문항을 추가하여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를 재구성하였다. 홍상황 등(2002)은 8개의 하위척도를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로 명명하였다.¹⁾

통제지배는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

1) 한국형 척도에서는 원척도와 다르게 하위척도를 명명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원척도에 관한 기술에서도 한국형 척도의 하위척도 명명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을 말하며,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안녕에 과도한 관심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냉담은 다른 사람과 감정 및 정서를 공유하고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뜻하며, 사회적 억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인 접촉을 피하는 문제를 말한다. 비주장성은 자기주장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과순응성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득 및 이용당하는 문제를 말한다. 자기희생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고 책임 지려고 하고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불분명한 문제를 말하며, 과관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기 위해 자기 노출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문제를 의미한다(홍상황 등, 2002; Alden et al., 1990).

이러한 청소년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애착을 꼽을 수 있다(홍진이, 한기백, 2015). 애착은 유아가 자신을 돌보는 주 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Ainsworth, Blehar, & Waters, 1978; Bowlby, 1982). 유아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애착 대상에 대한 지각, 감정 및 행동을 포함하는 애착 행동 체계를 발달시킨다(Bowlby, 1982).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고 접근 가능하며 반응적이라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안전 피난처가 되는 애착 대상에게서 위로, 지지와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안정 기지가 되는 애착 대상을 근거로 자율성을 가지고 더 큰 세상과 사회로 나아가고 탐색하게 된다(Bowlby, 1973).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는 자신, 타인 및 세상에 대한 심리적 표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Bowlby, 1982; Bretherton

& Munholland, 1999). 즉, 애착대상이 가까이 있고 반응적이며 지지적일 때 자기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타인은 믿을만한 존재라는 내적 작동모형을 갖는다. 반면, 애착대상이 반응적이지 않고 지지적이지 않을 때에는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며 타인은 신뢰하기 어렵고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냉담한 존재라는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하는 것이다. Bartholomew와 Horowitz (1991)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애착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안정형, 몰두형, 회피형 및 두려움형을 포함한다.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이 모두 긍정적이며, 몰두형은 자신에 대한 표상은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한 표상은 긍정적이다. 회피형은 자신에 대한 표상은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한 표상은 부정적이며, 두려움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이 모두 부정적이다.

한편, Brennan, Clark과 Shaver(1988)는 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애착불안은 거부와 유기에 대해 두려워하고 관계에 매달리는 것을 말하고, 애착회피는 관계에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말한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은 성인애착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애착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도 적용되고 사용되었다(박지선, 2008; Brenning, Soenens, Braet, & Bosmans, 2011). 두 가지 차원의 애착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형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애착회피는 타인에 대한 표상과 관련이 있고 애착불안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rennan et al.,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주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은 아동을 넘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성격발달,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경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2; Hazan & Shaver, 1987). 청소년기에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초기의 내적작동모형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지만, 주 양육자는 여전히 청소년에게 중요한 안전 피난처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안정 기지의 역할을 한다(Kenny, 1987; Rice, 1990). 따라서, 주 양육자와 안정애착을 형성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반면, 주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어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관계문제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남연, 양난미, 2012; 김성령, 2016; 이창규, 2013; 홍진이, 한기백, 2015). 특히,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를 사용한 대인관계문제와 부모애착 간의 부적 관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창규(2013)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령(2016)의 연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남연과 양난미(2012)의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대인관계문제 원형 척도의 전체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수록 대인관계문제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고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서 관계에 매달리고 침입적인 특성을 보인다(Brennan et al.,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이로 인하여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원형 상의 지배 쪽 문제를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기 개방을 꺼려하는 성향을 보인다(Brennan et al.,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따라서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문제 원형 상에서 적대 쪽의 문제를 많이 보고하고 친밀 쪽의 문제를 적게 보고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의 8개 하위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미경(2013)은 성인애착의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8개의 대인관계문제를 모두 많이 보고하였고, 특히 애착불안은 과관여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애착회피는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및 통제지배와는 부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양민정(2011)도 애착불안은 8개의 대인관계문제와 모두 정적 관련이 있고, 그중 과관여에 대한 애착불안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통제 지배 및 과순응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며, 과관여 및 자기희생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원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 관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

하여 애착 유형을 구분하였다. 몰두형 애착은 과관여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사회적 억제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회피형 애착은 냉담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두려움형 애착은 사회적 억제 및 비주장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과관여, 지배통제 및 자기중심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Horowitz 등(1993)이 단기역동치료를 받는 평균 33세의 36명의 남녀 내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 외에도 기본심리욕구 만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기본심리욕구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필수적 자원이 되는데,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고 학습 성취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이나 긍정적 행동 발달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 Niemiec, et al., 2006). Deci와 Ryan(2000)은 자기결정이론에서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균형 있게 만족될 때, 심리 내적으로 성장하고 통합되며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상호교류도 증진된다고 하였다(Ryan & Deci, 2002). 그들에 따르면, 통제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가치와 주도성을 느끼는 것이다. 유능감은 기술과 역량을 증진시키고 도전함으로써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보살핌을 받음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교감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감과 자율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Ryan(1982)은 자율성은 유능감의 선행요인으로 자율성이 만족될 때 유능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 문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ullivan(1953)은 의미 있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친밀감의 욕구와 지위나 권력을 갖고 자기 가치감을 느끼고자 하는 자존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Sullivan(1953)의 이론을 발전시킨 Leary(1957)에 따르면, 친밀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자기희생과 같은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하며 자존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서 통제지배와 같은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Horney(2006)도 심리적 욕구가 사람들에게 향함, 사람들에게 맞섬 및 사람들에게서 멀어짐과 같은 대인관계 경향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우선, 소속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안전감을 느끼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공통의 관심사나 다른 사람의 친화적 측면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향함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고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맞섬 경향을 보이며, 다른 사람과 정서적 거리를 두고 내면적으로 독립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경향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에서 통제감 및 주도성을 의미하는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의미하는 유능감은 Sullivan의 자존감의 욕구와 연결되며, 복종-지배 차원의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관계성은 대인관계 내에서 서로 돌보는 것으로 Sullivan의 친밀감의 욕구와 관련되며, 적대-친밀 차원의 대인관계문제와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정경아(2015) 및 박지아와 김완일(2017)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정경아(2015)의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대인관계문제와 전반적으로 부적 관련이 있었는데, 자율성 만족과 유능감 만족이 낮을수록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및 과순응성 대인관계문제를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관계성 만족이 낮을수록 자기중심성, 냉담 및 사회적 억제 대인관계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박지아와 김완일(2017)의 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주 양육자와의 애착,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대인관계의 문제 간의 관계는 주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 때 심리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Wei, Philip, Shannon, & Zakalik, 2005). 주 양육자가 민감하고 아동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반응함으로써 아동이 안정애착을 형성할 때, 타인에 대한 친밀감의 욕구가 만족되며, 주 양육자를 안정기지로 두고 환경과 사회를 탐색하면서 자율성과 유능감의 욕구가 만족된다(La Guardia et al., 2000; Wei et al., 2005). 구체적으로, 안정애착을 바탕으로 증진되는 아동의 자기-주도성은 자율성 욕구 만족과 관련되며, 주 양육자가 유아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아동의 자신감과 효능감이 증진되고, 이는 호기심, 도전,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능감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온정과 사랑으로 연결된

느낌과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갖는 것은 관계성의 만족과 연결된다(La Guardia et al., 2000; Wei et al., 2005).

경험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La Guardia 등(2000)은 세 개의 일련의 연구에서 애착과 자율성 및 유능감 욕구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애착은 자율성 및 유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부애착은 자율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반면, 유능감과는 낮은 크기의 관련이 있거나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대부분 성인애착을 연구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용희, 2017; 조영미, 이희경, 2013; 조영희, 정남운, 2016; 조화진, 서영석, 2011)는 일관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애착은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인관계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가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복중-지배나 적대-친밀의 두 가지 차원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8개 대인관계문제의 원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적다. 또한 애착의 두 가지 차원 중 애착불안은 복중-지배 차원과 애착회피는 적대-친밀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감과 이에 선행하는 자율성은 복중-지배 대

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계성은 적대-친밀 차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Horney, 2006; Leary, 1957; Sullivan, 1953),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도 제한적이었다. 또한, 주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때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고 이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La Guardia et al., 2000; Wei et al., 2005),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검증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와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1-1. 주 양육자와의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상의 복중-지배 차원에서 지배 쪽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애착불안은 적대-친밀 차원과는 관련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1-2. 주 양육자와의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상의 적대-친밀 차원에서 적대 쪽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애착회피는 복중-지배 차원과는 관련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가설 2. 기본심리욕구만족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1. 자율성 만족과 유능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율성과 유능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 상의 복중-지배 차원에서 복중 쪽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또한 자율성과 유능감은 적대-친밀 차원과는 관련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2-2. 관계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형모형 상의 적대 쪽의 대인관계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또한 관계성은 복중-지배 차원과는 유의한 관련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가설 3.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기본심리욕구만족을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에서 복중-지배 및 적대-친밀 차원과 관련된 가설 및 가설 3을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가설과 그림 2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

를 매개한 매개효과가 유의하며(가설 3), 이러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포함한 전체 효과도 유의할 것으로 가정하였다(가설1과 가설2의 일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인천, 경기도 및 경상북도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652명의 고등학생에게서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반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지필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62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이 368명(59.0%)이었고 여학생이 256명(41.0%)이었다. 나이는 평균 만 16.29세(표준편차 .73)였고, 범위는 14세부터 19세까지였다. 학교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309명(49.5%)이었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315명(50.5%)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312명(50.0%), 2학년이 309명(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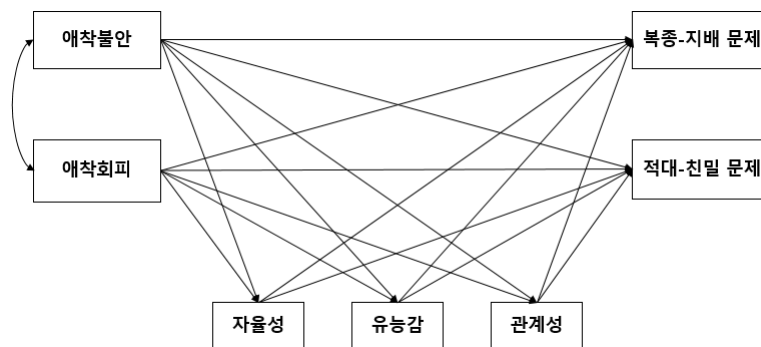


그림 2. 주 양육자와의 애착, 기본심리욕구만족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이었고, 무응답이 3명(0.5%)이었다. 거주 지역 별로는 서울이 132명(21.2%), 인천이 124명(19.9%), 경기도가 290명(46.5%) 그리고 경상북도가 78명(12.5%)이었다. 주 양육자는 중복 응답이 가능했는데, 어머니가 387명(62.0%), 아버지가 60명(9.7%), 어머니와 아버지가 115명(18.4%),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32명(5.1%),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포함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21명(3.3%), 그 외가 4명(0.6%), 무응답이 5명(0.8%)였다.

측정도구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 단축형

Horowitz 등(1988)은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를 Alden 등(1990)이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IIP-C)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영환 등(2002)이 한국형 문항을 추가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C)를 다시 홍상환 등(2002)이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 단축형(KIIP-SC)으로 타당화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KIIP-SC를 사용하였다. KIIP-SC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의 8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각 하위요인은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며, 전체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있다'(통제지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자기중심성),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냉담),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사회적 억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비주장성),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과순응성),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자기희생),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싶어진다'(과관여).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창규(2013)의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가 각각 .80, .83, .85, .84, .87, .80, .74, .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가 각각 .75, .86, .87, .83, .88, .80, .74, .74였다.

애착 척도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 등(1998)이 개발하고 Fraley, Waller과 Brennan(2000)이 개정한 친밀관계 경험척도(Experiences of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를 김성현(2004)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박지선(2008)이 청소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박지선(2008)은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렸을 때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응답하도록 하고, '주 양육자'를 떠올리면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2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애착불안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예, '주 양육자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애착회피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편감과 친밀성에 대한 두려움을 측

정한다(예, ‘주 양육자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는 것이 불편하다’).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척도는 전체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각각 18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2008)의 연구에서 부모애착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애착불안은 .85, 애착회피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각각 .88과 .93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척도

기본심리욕구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Deci와 Ryan(2000)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은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을 의미한다(예,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유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고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효율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예,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으로 타인과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정이다(예,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의 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는 점수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척도는 전체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만족되었음을 의미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명남과 장진이(2017)의 연구에서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6, .86,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내적 신뢰도가 각각 .81, .86, .86이었다.

자료분석

우선, SPSS 18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유형(일반고와 특성화고)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과 관련하여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대인관계문제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 성별을 투입하여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AMOS 18을 사용하여, 그림 2에서 제시한 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및 전체효과와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8개 대인관계문제 점수를 표준화하였고, Horowitz(1988)가 제안한 공식²⁾

2) 복중-지배 = 통제지배-비주장성+.707(자기중심성-사회적 억제-과순응성+자기희생); 적대-친밀 = 자기희생-냉담+.707(과관여-자기중심성-사회적 억제+과순응성). 이 때, 양(+)의 점수는 각각 지배 및 친밀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음(-)의 점수는 각각 복중 및 적대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을 적용하여 복중-지배 대인관계와 적대-친밀 대인관계 점수를 산출하였다(정남운, 2001; Schauenburg, et al., 2000).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림 2에 성별과 애착 간의 상관 및 성별이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하여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또한, PROCESS (Hayes, 2013)를 활용하여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매개한 개별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개별 간접효과 검증에서도 성별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애착,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의 왜도의 절댓값의 범위는 .01에서 .86(표준오차=.10), 첨도의 절댓값의 범위는 .00에서 .59(표준오차=.20)로, 표본의 분포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주요 변인이 성별과 학교 유형(일반고 및 특성화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Wilks' λ =.954, $F(13,607)=3.83$ $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애착회피, 통제지배 및 자기중심성이 높았고($F(1,619)=6.81$, $p<.01$; $F(1,619)=1.90$, $p<.05$; $F(1,619)=3.21$, $p<.05$), 관계성 만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F(1,619)=$

12.04, $p<.01$).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Wilks' λ =.982, $F(13,607)=.87$ $p>.05$), 성별과 학교 유형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Wilks' λ =.970, $F(13,607)=1.46$ $p>.05$).

표 1에 제시한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8개의 대인관계문제 하위척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_s=.21\sim.39$, $p_s<.001$). Cohen 등(1988)의 기준을 따르면, 애착불안은 자기희생과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다른 차원과는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인관계문제를 복중-지배 및 적대-친밀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애착불안은 적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련 및 친밀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r_s=-.11$, $p<.05$). 애착회피도 8개의 대인관계 하위차원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r_s=.11\sim.47$, $p_s<.05$),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및 통제지배와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다른 차원과는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인관계문제를 복중-지배 및 적대-친밀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애착회피는 복중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련 및 지배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관련이 있었고($r_s=-.08$, $p<.05$), 적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련 및 친밀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r_s=-.28$, $p<.001$).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율성과 관계성은 8개의 대인관계문제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r_s=-.32\sim-.09$, $p_s<.05$), 유능감은 자기희생과 과관여를 제외한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r_s=-.49\sim-.10$, $p_s<.05$).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었을수록, 복중 문제는 낮고 지배 문제는 높게 보고하였고($r_s=.12\sim.32$, $p_s<.05$), 적대 문제는 낮고 친밀 문제는 높게 보고하였다($r_s=.13\sim.44$, $p_s<.05$).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M	SD
1. 애착불안	-															2.10	.77
2. 애착회피	.63	-														2.11	.92
3. 자율성	-.47	-.47	-													4.57	.86
4. 유능감	-.24	-.41	.48	-												4.21	.91
5. 관계성	-.45	-.53	.54	.52	-											4.76	.80
6. 통제지배	.36	.24	-.24	-.10	-.36	-										2.16	.69
7. 자기중심성	.43	.41	-.42	-.39	-.59	.50	-									1.95	.72
8. 냉담	.39	.47	-.50	-.48	-.67	.33	.70	-								2.11	.86
9. 사회적억제	.35	.40	-.53	-.45	-.60	.32	.63	.83	-							2.29	.86
10. 비주장성	.33	.38	-.61	-.49	-.54	.18	.57	.74	.80	-						2.33	.89
11. 과순응성	.32	.25	-.52	-.35	-.37	.32	.45	.52	.61	.68	-					2.43	.80
12. 자기희생	.21	.11	-.31	-.07	-.10	.33	.15	.21	.36	.39	.67	-				2.83	.78
13. 과관여	.36	.19	-.29	.00	-.27	.68	.39	.29	.31	.24	.46	.51	-			2.37	.73
14. 복종-지배	.06	-.08	.28	.32	.12	.56	.08	-.31	-.43	-.61	-.40	-.15	.42	-		.00	.63
15. 적대-친밀	-.11	-.28	.13	.35	.44	.06	-.50	-.59	-.44	-.30	.20	.58	.34	.20	-	.00	.66

주. N=624. 제시된 상관계수 .08이상은 $p < .05$, .12이상은 $p < .01$, .19이상은 $p < .001$ 임.

8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회귀분석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대인관계문제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의 왼쪽과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성별을 통제한 후에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를 13%, 22%, 23%, 17%, 16%, 10%, 5% 및 13% 설명하였고, 자기중심성과 냉담에 대한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기희생에 대한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에 대해서는 애착불안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냉담, 사회적 억제 및 비주장성에서는 애착회피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의 8개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고유효과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애착불안이 높을 수록 8개의 대인관계문제를 모두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착불안이 높을 때 과관여, 통지지배 및 자기중심성의 고유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beta_s = .39, .34, .30, p_s < .001$). 애착회피는 냉담에 대한 고유효과가 정적으로 가장 컸으며($\beta = .38, p < .001$), 자기중심성, 사회적 억제 및 비주장성에 대한 고유효과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2, .29, .29, p_s < .001$).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대인관계문제를 얼마나

표 2.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ΔR^2	ΔF	β	t	독립변인	ΔR^2	ΔF	β	t
종속변인: 통제지배					종속변인: 통제지배				
1단계: 성별	.01	4.65*	-.08	-2.11*	1단계: 성별	.01	4.65*	-.04	-1.13
2단계	.13	45.60***			2단계	.14	33.83***		
애착불안			.35	7.14***	자율성			-.11	-2.43*
애착회피			.02	.39	유능감			.15	3.28**
					관계성			-.37	-7.75***
종속변인: 자기중심성					종속변인: 자기중심성				
1단계: 성별	.01	5.55*	-.07	-1.94†	1단계: 성별	.01	5.55*	-.02	-.75
2단계	.22	85.94***			2단계	.36	117.19***		
애착불안			.31	6.70***	자율성			-.13	-3.22**
애착회피			.21	4.48***	유능감			-.08	-2.08*
					관계성			-.48	-11.64***
종속변인: 냉담					종속변인: 냉담				
1단계: 성별	.00	.66	.01	.24	1단계: 성별	.00	.66	.05	1.66
2단계	.23	94.50***			2단계	.50	202.85***		
애착불안			.15	3.27**	자율성			-.15	-4.33***
애착회피			.39	8.28***	유능감			-.14	-3.99***
					관계성			-.53	-14.42***
종속변인: 사회적억제					종속변인: 사회적억제				
1단계: 성별	.00	.13	.05	1.28	1단계: 성별	.00	.13	.08	2.50*
2단계	.17	65.11***			2단계	.43	155.87***		
애착불안			.15	3.32**	자율성			-.25	-6.56***
애착회피			.30	6.34***	유능감			-.13	-3.39**
					관계성			-.41	-10.53***
종속변인: 비주장성					종속변인: 비주장성				
1단계: 성별	.00	.00	.03	.82	1단계: 성별	.00	.00	.04	1.33
2단계	.16	59.60***			2단계	.46	171.79***		
애착불안			.15	3.18**	자율성			-.39	-10.69***
애착회피			.29	6.08***	유능감			-.17	-4.75***
					관계성			-.25	-6.4***

표 2.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회귀분석 (계속)

독립변인	ΔR^2	ΔF	β	t	독립변인	ΔR^2	ΔF	β	t
종속변인: 과순응성					종속변인: 과순응성				
1단계: 성별	.00	.00	.01	.25	1단계: 성별	.00	.00	.01	.40
2단계	.10	35.59***			2단계	.29	82.42***		
애착불안			.26	5.37***	자율성			-.42	-9.98***
애착회피			.08	1.64	유능감			-.10	-2.33*
					관계성			-.10	-2.18*
종속변인: 자기희생					종속변인: 자기희생				
1단계: 성별	.00	2.12	-.06	-1.53	1단계: 성별	.00	2.12	-.08	-1.94†
2단계	.05	15.42***			2단계	.11	24.62***		
애착불안			.25	4.87***	자율성			-.39	-8.21***
애착회피			-.06	-1.09	유능감			.08	1.72
					관계성			.08	1.56
종속변인: 과관여					종속변인: 과관여				
1단계: 성별	.00	.05	-.01	-.24	1단계: 성별	.00	.05	.01	.32
2단계	.13	.13***			2단계	.15	37.41		
애착불안			.39	8.02***	자율성			-.29	-6.26***
애착회피			-.05	-1.09	유능감			.27	6.05***
					관계성			-.26	-5.44***

주. N=624, †p=.053, *p<.05, **p<.01, ***p<.001. β 값은 최종 모형에서의 값



그림 3.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애착불안 및 애착 회피의 고유효과

주. 바깥 쪽 팔각형은 $\beta=0.5$, 가운데 팔각형은 $\beta=0.0$, 교차점은 $\beta=-0.5$ 임



그림 4.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의 고유효과

주. 바깥 쪽 팔각형은 $\beta=0.3$, 가운데 팔각형은 각각 $\beta=0.0$ 와 $\beta=-0.3$, $\beta=-0.6$, 교차점은 $\beta=-0.9$ 임

나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2의 오른쪽과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및 과관여를 14%, 36%, 50%, 43%, 46%, 29%, 11% 및 15%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8개의 대인관계문제를 모두 부적으로 설명하였고($p_s < .05$), 자율성 만족이 낮을수록 8개의 대인관계문제를 모두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주장성, 과순응성 및 자기희생에 대한 고유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_s = -.40, -.42, -.38, p_s < .001$). 유능감은 과관여 및 통제지배 문제행동에 대한 고유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_s = .34, .16, p_s < .001$),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및 과순응성에 대한 고유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_s = -.08, -.14, -.13, -.17, -.10, p_s < .05$). 관계성은 자기희생을 제외한 대인관계문제를 부적으로 설명하였는데, 냉담에 대한 고유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_s = -.52, p < .001$).

주 양육자와의 애착, 기본심리욕구만족과 복종-지배 및 적대-친밀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

계에 대한 경로분석

그림 2에 제시된 주 양육자와의 애착,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모형에서의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기본심리욕구에 이르는 경로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였는데($p_s < .05$), 애착불안이 유능감에 이르는 경로만 유의하지 않았다($p > .05$). 기본심리욕구와 복종-지배 및 적대-친밀 대인관계문제의 단순상관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표 2),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차이가 있었다. 즉, 자율성이 적대-친밀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0, p < .01$), 관계성이 복종-지배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7, p > .05$).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복종-지배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지배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효과 = .19, $p < .05$). 애착불안이 복종-지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표 3. 주 양육자와의 애착, 기본심리욕구만족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복종-지배	적대-친밀
애착불안	-.29**	.04	-.20**	.25**	.13*
애착회피	-.35**	-.29**	-.43**	-.03	-.16**
자율성	-	-	-	.30**	-.20**
유능감	-	-	-	.26**	.19**
관계성	-	-	-	-.07	.43**

주. N=624. * $p < .05$, ** $p < .01$.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표 4.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효과	예언변인	→	준거변인	효과크기(95% bias-corrected CI)	
				복중-지배	적대-친밀
전체효과	애착불안	→	대인관계문제	.19* (.09, .30)	.11 [†] (-.01, .21)
	애착회피	→	대인관계문제	-.21** (-.30, -.09)	-.35** (-.45, -.23)
직접효과	애착불안	→	대인관계문제	.25** (.14, .36)	.13* (.03, .21)
	애착회피	→	대인관계문제	-.03 (-.16, .08)	-.16** (-.27, .07)
간접효과	애착불안	→	대인관계문제	-.06* (-.13, -.01)	-.02 (-.07, .04)
	애착회피	→	대인관계문제	-.17** (-.25, -.12)	-.18** (-.13, -.01)

주. N=624. [†] $p=.059$, * $p<.05$, ** $p<.01$.

반면($\beta=.25, p<.01$),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6, $p<.05$). 한편,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복중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전체효과=-.21, $p<.01$). 이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beta=-.03, p>.05$)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여(간접효과=-.17, $p<.05$), 애착회피가 복중-지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친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애착불안이 적대-친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전체효과=.11, $p=.059$),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13, $p<.05$)다. 즉,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친밀 대인관계를 많이 보고하지만, 애착불안이 기본심리욕구만족을 낮추어 적대 쪽 대인관계가 많아지면서 애착불안과 친밀 대인관계 간의 정적 관계가 상쇄됨을 의미한다. 애착회피가 적대-친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전체효과=-.35, $p<.01$; 직접효과=-.16, $p<.01$; 간접효과=-.18, $p<.01$). 즉,

주 양육자와의 애착회피가 높을 때 적대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일부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하였다.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의 개별 매개효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복중-지배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율성 만족이 낮아짐으로써 복중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고(간접효과=-.07, 95% CI=-.10, -.04),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율성 및 유능감 만족이 낮아짐으로써 복중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7, 95% CI=-.11, -.04; 간접효과=-.09, 95% CI=-.13, -.05). 적대-친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율성 만족이 낮아지는 것을 매개로 친밀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였고(간접효과=.05, 95% CI=.02, .08),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관계성 만족이 낮아짐으로써 적대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간접효과=-.17, 95% CI=-.11, -.04). 한편,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율성 만족이 낮아지고 이를 매개로 친밀 대인관계를 많이 보고하였고(간접효과=.05, 95% CI=.02, .08), 유

표 5.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의 효과에서 기본욕구만족의 개별간접효과

예언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	간접효과크기 (95% bias-corrected CI)	
			복중-지배	적대-친밀
애착불안	→ 자율성	→ 대인관계문제	-.07 (-.10, -.04)	.05 (.02, .08)
애착불안	→ 유능감	→ 대인관계문제	.01 (-.01, .03)	.01 (-.01, .02)
애착불안	→ 관계성	→ 대인관계문제	.01 (-.00, .03)	-.07 (-.11, -.04)
애착회피	→ 자율성	→ 대인관계문제	-.07 (-.11, -.04)	.05 (.02, .08)
애착회피	→ 유능감	→ 대인관계문제	-.09 (-.13, -.05)	-.06 (-.10, -.03)
애착회피	→ 관계성	→ 대인관계문제	.02 (-.01, .05)	-.13 (-.17, -.09)

주. N=624. 제시된 값은 완전표준화된 매개효과임.

능감 만족과 관계성 만족은 낮아지고 이를 매개로 적대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06, 95% CI=-.10, -.03; 간접효과=-.13, 95% CI=-.17, -.0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를 원형모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문제,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설과 관련된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원형으로 배열된 8개의 대인관계문제에서 인접한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큰 상관이 있었고, 원형 상에서 대척점에 있는 대인관계문제와는 유의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대인관계문제의 원형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형 상의 8개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졌고(그림 3),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의 효과도 점진적인 변

화를 보였고(그림 4), 이러한 결과도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1에서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고 특히 지배 관련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은 지지되었다. 애착불안은 8개의 대인관계문제와 모두 정적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과관여, 통지지배 및 자기중심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관련이 있었다. 또한,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지배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고, 적대-친밀 차원에서는 유의하게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8개의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관련이 있고 특히 과관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진미경(2013)의 연구와 양민정(2011)의 연구와 일치하며, 몰두형 애착은 지배-친밀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고, 이러한 애착 관련 두려움으로 인하여 건설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관계에 매달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과관여나 통제지배 상호작용과 같은 지배 쪽 대인관계를 통하여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 1에서는 또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보고하고, 특히 적대 관련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애착회피는 냉담과의 정적 관련성이 가장 컸고, 대인관계 문제 원형 모형에서 냉담에 인접한 자기 중심성, 사회적 억제 및 비주장성과도 정적 관련이 있었다. 가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복종 쪽 대인관계문제도 많이 보고하였고, 그 크기는 애착회피와 적대 간의 관계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양민정(2011)이나 진미경(2013)의 연구와 일치하며, 회피형 애착이 적대와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관계에서 거리감을 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독립적인 경향이 있다(Brennan et al., 1998; Griffin & Bartholomew, 1994; Mikulincer, et al., 2003).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와 같은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주장성은 대인관계 원형모형에서 복종 쪽 대인관계문제이고, 애착과의 관계에서는 적대 쪽의 냉담이나 사회적 억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

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 주장과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비주장성’을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가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적대에 비해서 친밀 쪽 대인관계와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관련성이 있기는 했지만 친밀 쪽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관련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애착회피는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및 통제지배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통제지배 및 과순응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양민정(2011)의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애착회피가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및 통제지배와는 부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진미경(2013)의 연구 결과나 회피형 애착이 친밀 및 복종과 부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애착은 주 양육자와의 애착인 반면 선행연구에서의 애착은 성인애착이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이 주 양육자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애착회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독립의 과정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되면서 주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기 때문에(Kenny, 1987; Rice, 1990),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대인관계문제를 5%-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민정(2011)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를 6%-48% 설명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미경(2013)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를 18%-61% 설명한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설 2에서는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문제가 부적으로 관련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자율성이 낮을수록 복중 관련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율성은 대인관계문제와 전반적으로 부적 관련이 있었고, 자율성이 낮을수록 자기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대인관계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하였다. 자율성이 낮아서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가치, 통제감 및 주도성을 느끼지 못할 때, 자기주장이나 의사표현이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득 및 이용당하며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고 책임지려는 대인관계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가정한 대로, 자율성이 낮을수록 복중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율성과 적대-친밀의 관계는 단순상관에서는 정적이었으나, 애착과 다른 심리욕구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부적으로 자율성이 낮을수록 친밀 쪽 대인관계문제도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이 낮을수록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및 과순응성 대인관계문제 등 적대-복중 쪽 문제를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한 정경아(2015)의 연구나 박지아와 김완일(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기본심리욕구의 고유효과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자율성이 낮을수록

친밀 쪽 대인관계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은 본 연구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성인이나 대학생은 자율성이 낮을 때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적대 대인관계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학교와 교실에서 타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등학생은 자율성이 낮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유능감이 낮을수록 복중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신의 기술이나 역량에 대한 효능감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과 감정 및 정서를 공유하고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며, 자기주장이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능감이 낮을수록 복중 쪽 대인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적대 쪽 대인관계도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박지아, 김완일, 2017; 정경아, 2015)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지되었다.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타인에게 순종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또 관계에서 자신의 낮은 유능감을 직면하고 확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나친 거리감을 두는 적대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능감은 단순상관에서는 자기희생, 과관여, 통제지배와 낮거나 유의하

지 않은 상관이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박지아, 김완일, 2017; 정경아,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나아가서,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유능감의 고유효과는 과관여와 통제지배에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유능감이 낮을 때 자율성 및 관계성도 낮기 때문에 자기희생, 과관여, 및 통제지배 대인관계문제가 많아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낮은 유능감은 직접적으로는 자기희생, 과관여 및 통제 지배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능감은 자율성이 만족될 때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Ryan, 1982),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유능감의 정적 고유효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성이 낮을수록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는 지지되었다. 관계성은 냉담을 중심으로 과관여, 통제지배, 자기 중심성, 사회적 억제 및 비주장성에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관계성이 낮을수록 적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돌봄이나 보살핌을 주고받으면서 교감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성이 낮을 때, 다른 사람과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는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성 만족이 낮을수록 자기중심성, 냉담 및 사회적 억제 대인관계를 더 많이 보고한 정경아(2015)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설 3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율성 만족이 낮았고, 낮은

자율성을 매개로 복종 대인관계문제와 친밀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유능감 만족이 낮고 이를 매개로 복종 문제나 적대 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 때 관계성 만족이 낮고 이를 매개로 복종 및 적대 문제를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거나 또 주 양육자와의 친밀함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때,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고, 따라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복종, 지배, 적대 및 친밀과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반응을 갖은 빈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Leary, 1957).

앞서 논의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만족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김용희, 2017; 조영미, 이희경, 2013; 조영희, 정남운, 2016; 조화진, 서영석, 2011)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에 비해서 애착회피가 기본심리욕구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용희, 2017; 조영미, 이희경, 2013; 조영희, 정남운, 2016; 조화진, 서영석,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 때에는 근접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반응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애착회피가 높을 때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관계를 통하여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킬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 양육자와의 애착불안은 유능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애착회피는 유능감

과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의 관련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La Guardia 등(2000)이 세 개의 연구에서 부애착이 유능감과 낮은 상관성이 있거나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자율성이나 관계성에 비해서 유능감이 애착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갖는 것은 유능감이 학업, 일이나 직장과 같이 친밀한 관계 외에서 충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La Guardia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를 원형모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문제,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을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와의 관계에서도 확인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주 양육자와의 애착도 2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아닌 성인애착을 연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양육자와의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보다 명료화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기본심리욕구만족을 매개로 살펴봄으로써 이론을 확장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 실재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여성가족부, 2016), 본 연구 결과는 복중-지배 차원과 적대-친밀 차원 및 8개의 대인관계문제의 틀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대인관

계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과관여와 과순응성은 친밀과 관련된 대인관계문제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지배-복종 차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에 따라서 상담의 예후도 예측할 수 있는데, 단기역동치료로 상담에서 과순응성 대인관계 문제 등 친밀 쪽 문제는 상대적으로 빨리 향상되며,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및 냉담 대인관계는 쉽게 향상되지 않고, 복중-적대 문제를 가진 내담자는 장기 상담에 대한 동기가 적다는 점 등을 상담자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Horowitz et al., 1993; Schauenburg, et al., 2000).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를 주 양육자와의 애착의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개입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Johnson, 1996). 예를 들어, 과관여 문제의 탐색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불안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사회적 억제 문제의 탐색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회피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관여 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자율성의 욕구와 관계성의 욕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사회적 억제 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관계성은 특히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탐색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의의와 함의를 가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논의하겠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성별, 학교 특성 및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및 경상북도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1학년과 2학년 남녀학생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하고,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교 학생들이나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 일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 수집 방식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할 때 개인의 반응편향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문자료는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고,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 솔직하게 응답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Brennan 등(1998)이 개발하고 Fraley 등(2000)이 개정한 친밀관계 경험척도를 김성현(2004)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박지선(2008)이 청소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내적 신뢰도는 .88과 .93으로 양호하였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선(2008)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보고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관계는 동일한 시점에서의 관계로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것은 대인관계문제의 선행요인이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문제로 인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종단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연, 양난미 (2012).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309-2328.
- 김성령 (2016).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1.
- 김용희 (2017). 대학생의 애착과 분노경험의 관계: 기본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2), 559-582.
- 박영주, 이영호 (2010).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우울경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41-452.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아, 김완일 (201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127-153.
- 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 여고생의 공격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

-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97-519.
- 양민정 (2011).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백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28 에서 검색.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창규 (2013). 고등학생의 부모애착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안정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2015).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1), 117-132.
- 조명남, 장진이 (2017).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반발심, 외로움에 따른 군집 유형별 학교중퇴의도. 상담학연구, 18(3), 171-190.
- 조영미, 이희경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 조영희, 정남운 (2016). 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69-190.
- 조화진,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진미경 (2013).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및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4), 285-300.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ing, K., Soenens, B., Braet, C., & Bosmans, G. (2011). An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for use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8), 1048-1072.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9-111).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Erikson, E. H. (2014). *유년기와 사회* (송제훈 역). 고양: 연암서가. (원전은 1950에 출판)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17-52).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rney, K.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이희경, 윤인, 이해리, 조한익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2년에 출판)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1), 5-15.
- Horowitz, L. M.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oring procedures*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49-560.
- Johnson, S. M. (2006).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s*. New York: Brunner/ Mazel.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3), 185-214.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eary, T.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 Emotion*, 27(2), 77-102.
- Niemiec, C. P., Lynch, M. F., Vansteenkiste, M., Bernstein, J., Deci, E. L., & Ryan, R. M. (2006).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colleg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5), 761-775.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5), 511-537.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50-461.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chauenburg, H., Kuda, M., Sammet, I., & Strack, M. (2000).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symptoms severity on the duration and outcome of short-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9(2), 133-146.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ei M. W., Philip A., S., Shannon K.,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3), 395-412.

원 고 접 수 일 : 2017. 12. 08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1. 19

계 재 결 정 일 : 2018. 02. 23

Attachment with Primary Caregiver and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Adolescents: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Model

Cho, Young-j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Seo, Hyun Ji

Gyeonggido Uijeongbu
Office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model, attachment with caregiver and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ata was collected from 624 high school students and was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es and path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anxie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ld interpersonal problems and attachment avoid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submissiveness and cold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autonom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bmissiveness and affiliation interpersonal problems. Compete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submissiveness and cold interpersonal problems, and related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cold interpersonal problem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with caregiver an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mediated by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Resul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model, attachment, primary caregiver,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adolescents